"이란전 확답 어렵다… 회복 중점"

기성용, "신태용 감독이 선수들 잘 파악하고 있어 기대돼"

국내에서 무릎수술을 받은 기성용이 소속팀 스완지시티에 합류하기 위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무릎 부상으로 국내에서 수술과 재활에 몰두했던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다.

기성용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갖고 새롭게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신태용 감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기성용은 "선수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감독님도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감독님이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 기대된다. 또 좋은 경기의 추억도 있다. 선수들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신 감독 부임 후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신 감독은 기성용의 몸 상태를 확인하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9차전 이란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구상중이다.

기성용은 "신 감독님께 연락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 감독님도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거라 생각한다. 선수들 파악하는데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실 것 같다"고 전했다.

기성용은 "지금으로선 이란전에 출전할 수 있다 없다를 단정할 수 없다. 재활을 하고 지켜봐야 한다. 한달 동안 회복에 집중할 생각이다. 마음 같아선 어떻게든 뛰고 싶은 마음이다. 정말 중요한 경기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성용은 지난 6월14일 카타르 원정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 무릎 통증으로 인해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무릎 슬개건 사이가 벌어져 생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했다.

◇다음은 기성용과의 일문일답

-무릎 상태는 어떤가.

"수술이 잘돼서 재활을 하고 있다. 이제 운동을 하는 단계다. 가서 재활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생각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새 시즌에 다소 늦게 시작하는데 각오는.

"무릎은 예전부터 좋지 않았다. 수술해서 마음이 편하다. 초반에는 팀 경기에 못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좋은 경기력 나올 것 같다."

-이란, 우즈베키스탄전 출전 여부는.

"지금은 '된다, 안된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재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 달 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 마음 같아서는 뛰고 싶고, 대표팀에 힘이 돼 주고 싶은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남은 2경기,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수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감독님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다. 상당히 기대가 된다. 선수들을 잘 파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수들이 지난번보다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으리라 본다."

-슈틸리케 감독이 중간에 그만두게 됐는데.

"축구하면서 수많은 감독님을 만나고 헤어지고 했다. 물론 아쉽다. 중간에 사퇴하신 건 선수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하지만 그게 축구다. 새로운 감독님이 오셔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빨리 잊고 새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신태용 신임 감독과 연락은.

"저번에 식사 한 번을 했다. 감독님도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가지 생각이 많으실거라 생각한다. 선수들 파악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실 것 같다."

-신태용 감독에 대해 어떤 부분이 특히 기대 되는지.

"감독님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뀔 수 밖에 없다. 전술적인 부분도 바뀔 수 있다. 기대 되는 선수들도 있을 것이다. 팀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적과 관련한 생각은 있나.

"먼저 몸이 낫는게 중요할 것 같다. 이적 관련해서는 1년 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여러모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

-소속팀에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나.

"강등권에서 지난해 힘들었다. 새 감독님이 오시고 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새로 시작하는 첫 시즌이니 지난해 보다 안정됐으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보다 좋은 경기력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보다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몸이 아프지 않아야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안세현 · 김서영, 한국수영 새 역사 쓰다

세계선수권대회서 한국 여자 역대 최고 성적 기록

7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아쿠아틱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여자 접영 100m 예선 경기, 한국 안세현이 역영을 마치고 숨을 고르고 있다.

안세현(22 · SK텔레콤)과 김서영(23 · 경북도청)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보여준 선전은 한국 수영계에 희망을 쐈다.

안세현은 25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아레나에서 열린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접영 100m 결승에서 57초07을 기록해 전체 8명 가운데 5위에 올랐다.

전날 준결승에서 한국신기록(57초15)를 작성해 전체 16명 가운데 6위로 결승에 오른 안세현은 하루 만에 한국기록을 0.08초 앞당기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선수권대회 뿐 아니라 올림픽까지 통틀어 한국 여자 선수의 역대 최고 성적이다.

김서영은 같은 날 벌어진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2분10초40을 기록해 전체 8명 가운데 6위에 올랐다.

안세현에 이어 한국 여자 선수의 세계선수권대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이다.

비록 메달을 수확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수영에 희망을 안겨주는 성적이다.

역사를 새로 쓴 박태환(28 · 인천시청)이 한국 수영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박태환을 빼면 올림픽에서 결승에 오른 것은 2004 아테네올림픽 여자 개인혼영 400m의 남유선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안세현, 김서영이라는 기대주가 등장했다.

안세현과 김서영은 전날 한국 선수로는 5, 6번째로 세계선수권대회 결승 진출을 일궜다.

2005년 이남은 이후 12년 만에 한국 여자 선수의 세계선수권대회 결승 진출이다.

안세현은 여자 접영 100m 준결승에서 57초15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2조 4위, 전체 16명 중 6위에 올라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김서영은 여자 개인혼영 200m 준결승에서 2분09초86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해 2조 3위, 전체 16명 중 5위를 차지해 결승 무대를 밟았다.

남녀를 통틀어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혼영에서 결승에 오른 것은 김서영이 최초였다.

안세현은 이날 하루 만에 한국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한국 수영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올림픽까지 통틀어도 한국 여자 선수의 역대 최고 성적이다.

준결승에서 전체 5위에 올라 내심 메달 기대감을 심었던 김서영은 결승에서 준결승 때 세운 한국기록보다 0.54초 느린 기록을 내 아쉬움을 삼켰다. 그러나 자신의 강세 종목인 배영 50m 구간에서 32초53의 랩타임을 기록,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는 저력을 선보였다.

이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더욱 반갑다.

울산 효정고 1학년이던 2011년 전국체전에서 59초32를 기록해 처음으로 접영 100m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안세현은 매년 신기록 행진을 벌여 6년 만에 한국기록을 2.25초 단축했다.

지난해 12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맥도널드 퀸즐랜드 챔피언십에서 57초60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안세현은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마레 노스트럼 투어에서 57초28을 기록, 6개월 만에 한국기록을 0.32초 앞당겼다.

김서영은 개인혼영 200m와 400m 한국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적수가 없다.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개인혼영 200m(2분10초23)와 개인혼영 400m(4분39초83), 계영 400m(3분44초38), 계영 800m(8분05초31) 등 총 4개의 한국기록을 갈아치웠고,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따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지난 5월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는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 4분35초93을 기록해 7개월 만에 한국기록을 3.90초나 줄였다.

이번 대회에서 9개월만에 개인혼영 200m 한국기록도 0.37초 단축했다.

2019년 안방에서 열릴 광주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박태환 외에 스타가 등장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던 한국 수영계에 안세현, 김서영의 성장세는 호재다.

/김민근기자

MLB류현진, 26일 만의 등판서 5이닝 2실점

류현진(30 · LA 다저스)이 시즌 4승째 수확을 눈 앞에 뒀다가 놓쳤다.

류현진은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5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다.

다저스는 2-2로 맞선 5회말 1사 3루 상황에서 류현진이 타석에 들어설 차례가 되자 대타 체이스 어틀리를 내세웠고, 류현진은 그대로 등판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LA 에인절스전 이후 26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4회 급격히 흔들리면서 2점을 허용했지만, 타선이 5회말 힘을 내면서 3점을 올리며 역전해 승리투수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6회 마운드를 이어받은 그랜트 데이턴이 동점 솔로포를 허용하면서 승리가 날아가고 말았다.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은 4.21에서 4.17로 조금낮아졌다.

류현진은 팀 선발진 사정상 후반기가 시작되고 10일 만에 선발로 마운드에 섰다.

79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50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었고, 삼진 5개를 솎아냈다.

그러나 볼넷도 3개를 내줬다.

패전 위기에 놓였던 류현진은 5회말 다저스가 그랜달, 자크 페더슨이 연속타자 홈런을 작렬해 동점을 만들어 패전에서 벗어났다.

3루타를 친 야시엘 푸이그가 크리스 타일러의 적시타로 홈을 밟아 다저스가 3-2로 역전하면서 류현진은 승리 요건을 갖췄다.

5회 1사 3루 상황에 맞은 타석 때 대타로 교체되면서 류현진은 승리 요건을 갖추고 6회 그랜트 데이턴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하지만 데이턴이 6회 1사 후 로사리오에게 동점 솔로 홈런을 맞으면서 류현진의 승리도 날아가고 말았다.

/김민근기자